

고창군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시굴조사 완료

12만6천㎡ 대상...고인돌 5기 새로 발굴 내년 정밀 조사

고창군이 국내 유일의 선사시대 세계유산인 고인돌유적에 대한 '2023년 시굴조사'를 완료했다. 고창군은 문화재청과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고인돌유적 전체 현황조사 및 고인돌 개별조사는 유적의 성격 파악과 보존정비를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고자 올해 12만6000㎡의 면적으로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신규 고인돌 5기와 석곽 1기, 석관 1기, 석실 1기, 석렬 10기, 구상유구 11기, 수혈 15기, 소성유구 2기, 토광묘 2기, 배수로 1기 등 다수의 유구가 최종 확인됐다.

특히 새로 발견된 고인돌 3기는 기존 군집과 떨어져 해발이 높은 지점 위치해 새로운 고인돌 열(列)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2기는 기존 고인돌

열과 같은 선상에 위치해 조사지역 밖 남쪽으로 고인돌이 추가 분포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과거에 존재했던 구하도(舊河道)가 3코스 중앙을 가로질러 고창천으로 이어지고 있음도 확인됐다.

고인돌이 구하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고인돌 축조 당시의 고지형을 추정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고창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국내 유일의 선사시대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에 대한 '2023년 시굴조사'가 완료됐다. 조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고인돌.

브레인 트레이닝 기계로 시민 심리치유 서비스

남원시보건소

남원시보건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는 이를 위해 대학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 기계'를 도입했다.

최근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남원시 우울감 경험률이 2019년 5.3%에서 2023년 12.6%로 증가하고 스트레스 인지율 또한 2019년 18.6%에서 2023년 23.6%로 증가함에 따라 우울증, 스트레스의 정신건강 검사와 상담·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원시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오피트 기계와 검사지를 이용해 정신건강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운봉 지리산 자작나무 숲길서 겨울 낭만 즐겨요"

웰빙 허브밸리 내 500여주 식재 황토포장·풍차조형물 등도 설치

남원시가 운봉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운봉읍 바래봉길 214)에 겨울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자작나무 숲이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작나무 숲은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허브밸리 내 0.8ha 면적에 500여주의 자작나무 및 황토포장, 데크시설, 풍차조형물 등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의 특성상 강원도 인제, 경상도 영양 등 한반도 중부 이북에서 볼 수 있던 모습을 옮겨올에는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에서 순백의 아름다움을 지닌 자작나무 숲을 방문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합토피아관 1층 키즈존에서는 라이브스케치, 곰돌이 조합놀이대, 드림통 놀이기구, 블록 조립존 등도 세단장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허브밸리 자작나무숲은 일상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명품 숲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곧 다가올 하얀 눈으로 뒤덮



웰빙 허브산업특구에 조성된 자작나무 숲. 인 순백의 자작나무숲에서, 허브밸리에서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따뜻한 허브차 한잔 마시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경운 정읍시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고경운(사진) 정읍시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 256차 시도대표 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 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에 수여하는 상이다.

고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으며,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경운 의장은 "시민의 봉사자로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2023년 4분기 명예읍면장 14명 위촉

고창군이 14일 읍·면장 추천을 받은 고창읍 조명희 씨 등 14명을 2023년 4분기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했다. <사진>



명예읍면장은 읍·면장 추천을 받은 지역 모범국민이 직접 행정에 대한 체감을 통해 민·관의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9월 민선 8기 첫 시행 후, 두 번째 시행으로 내년에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4분기 명예 읍면장은 조명희(고창읍), 김정례(고수면), 김혜경(아산면), 박래순(무장면), 박현숙(공음면), 한연임(상하면), 김현자(해리면), 이성자(성성면), 박재계(대산면), 조성실(심원면), 임재우(흥덕면), 백원규(성내면), 안효남(신림면), 정인석씨(부안면)가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명예읍면장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이동해 하루동안 주민상담 및 의견수렴, 관내 주요사업장과 소외계층 방문 등의 일선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불법 도로점용물 정비·파손 도로 신속 복구 등 인정

정읍시가 전북도가 주관하는 '2023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도로 6869km를 대상으로 도로정비 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진행했다. 도로정비 평가는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도로정비 상태, 예산집행, 안전교육, 사고발생 건수 등이다. 정읍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은

물론 불법 도로점용물 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했다고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파손된 포장도로의 신속한 포장 복구와 상시 현장 출동체계 구축으로 도로이용자 불편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인정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도로환경은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정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